

국가지능화 특집

인공지능(AI) 분야
VC투자 특성과 시사점최새솔 • saesol.choi@etri.re.kr
기술정책연구본부

사회가 디지털사회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스타트업은 단순히 창업기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식 창출 등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인식되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빠르고 역동적인 성장을 보이며 산업생태계의 핵심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빠른 진화속도와 광범위한 적용성 등 인공지능의 기술특성과, 모험감수, 기술혁신, 기민한 대응 등의 스타트업 특징이 잘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스타트업의 투자동향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I발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이에 본고는 AI 분야의 세계 VC 투자특성을 주요 활동량 동향(투자건수, 규모, 설립기업, 회수기업) 측면에서 검토하고, 주요 시장별 특성과 투자 분야 변화를 분석한다. 끝으로 국내 AI 분야의 VC투자현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해 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ETR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세계 AI 분야 VC투자 특성 (투자건수, 투자규모)

AI VC(Venture Capital)투자는 지난 5년간 ('14-'18) 투자건수로는 연평균 35.6%, 투자금액으로는 65.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자건수로 연평균 5.6%, 투자금액으로 29.7%의 성장률을 보인 전체 VC 투자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 VC투자에서 AI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0년 전체 VC투자건수에서 1.2%, 투자규모로는 0.5%에 불과했던 것이, '19년 9월에는 투자건수로는 8.8%, 투자규모로는 8.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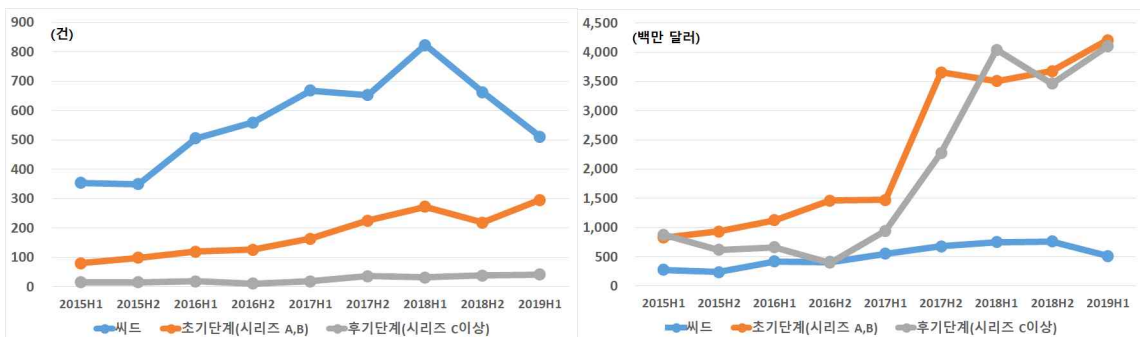
다만, '16년 이후 건당 투자규모의 증가(표1), '18년 상반기 이후 씨드투자 건수의 지속감소와 '17년 상반기 이후 초기 및 후기단계의 투자규모 급증(그림1)의 사실은 투자자 산업성숙과 함께 소수의 확실한 투자처에 대규모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AI 분야 세계 VC 투자 동향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백만\$)	건당 투자규모 (백만\$)	전체VC투자건수 중 AI비중	전체VC투자규모 중 AI비중
2010	104	280	2.7	1.2%	0.5%
2011	132	553	4.2	1.2%	0.8%
2012	237	666	2.8	1.7%	0.9%
2013	477	1,402	2.9	2.5%	1.6%
2014	727	2,373	3.3	3.0%	1.7%
2015	1,123	4,608	4.1	4.2%	2.6%
2016	1,640	5,430	3.3	6.1%	2.8%
2017	2,196	12,583	5.7	7.8%	4.4%
2018	2,446	18,017	7.4	8.1%	4.6%
2019.9	1,366	17,941	13.1	8.8%	8.4%

* 출처: 크런치베이스DB¹⁾ 자료(2019.9.24. 접속기준), 저자 재정리

그림 1 AI분야 최근 5년간 반기별 투자단계 동향 (2015상반기~2019상반기)



* 출처: 크런치베이스DB 자료(2019.9.24. 접속기준),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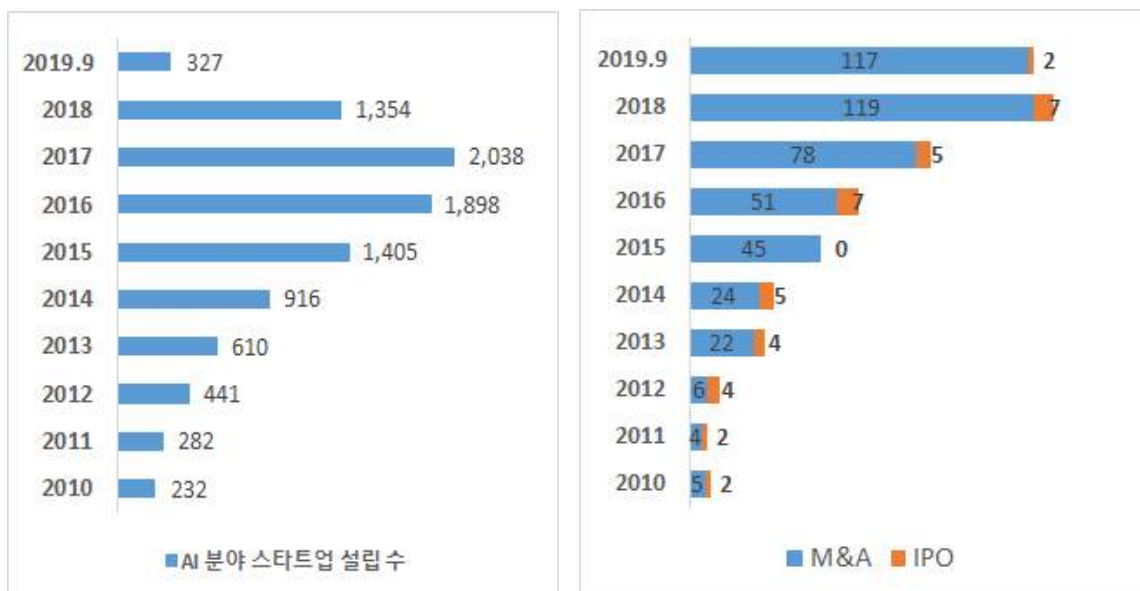
1) 크런치베이스(www.crunchbase.com)는 세계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으로, 업체의 self-reporting 방식으로 운영되며 10만 건 이상의 투자정보를 제공 중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크런치베이스DB를 활용하였다.

2 세계 AI 분야 VC투자 특성 (설립기업, 회수기업)

현재까지 설립된 AI 분야 스타트업은 11,740개, 이 중 폐업이 212개, M&A와 IPO로 회수된 기업이 541개로, 현재 운영 중인 총 스타트업 수는 10,987개사로 파악되었다. 이 중 '10년 이후, 설립된 AI 업체수가 9,503개사로, '10년 이후부터 비로소 AI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설립은 '12~'16년까지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17년을 정점으로 '18년 이후 설립 기업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회수(M&A, IPO)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회수는 스타트업 투자의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지난 10년간 AI 분야 회수동향을 보면, IPO보다는 M&A가 더 선호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년~'19년 기간 동안 AI 분야 M&A와 IPO사례의 비중은 93:7로 M&A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추세적으로도 M&A는 투자와 산업이 성숙되면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IPO는 '16년 이후 하락·답보 상태에 있다. 회수도달기간 분석에서도 같은 기간, 회사 설립에서 M&A로 회수되기까지 소요시간은 중간값 기준으로 4.4년이, IPO의 경우 6.8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VC 전체시장에서 M&A 기업이 8.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2배가량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IPO의 경우는 전체 VC시장에서 6.5년으로 AI시장의 6.8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AI VC투자 시장에서 M&A는 주요한 회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빠른 회수도달기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AI 스타트업 설립 및 회수 동향(2010-2019.9)



* 출처: 크런치베이스DB 자료(2019.9.24. 접속기준), 저자 재정리



3 주요 시장별 AI 분야 투자 특성

투자현황을 주요 시장(미국, 중국, 유럽)별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미국은 투자건수& 규모, 기업수와 회수시장 전반에서 전 시장을 선도하는 활동량을 보인다. 중국은 투자건 당 투자규모가 매우 높는데, 이는 '15년 이후, 중국의 선두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시장은 투자건수, 기업수, 회수건 측면에서 시장 강건성과 잠재력이 나타나지만, 투자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주요 투자분야(유니콘)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율주행과 로봇틱스 업무자동화(RPA), 농업재배기술 관련이, 중국은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안면인식 솔루션, AI 반도체가, 유럽은 헬스케어, 반도체 분야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 되었다.

표 2 주요시장 별 AI분야 VC투자 특성²⁾(2010~2019.9)

구분	투자건수	투자규모 (백만\$)	기업 수 (19.9 기준)	회수건수 (M&A(上), IPO(下))	유니콘 기업 ³⁾ (기업수(上), 평가가치IPO(下))	유니콘 가치평가 TOP5	
						기업명	분야
미국	4,815 (46.1%)	35,165 (55.1%)	3,764 (34.3%)	240 (51.0%)	21 (48.8%)	UiPath	RPA
		7.3/건		12 (31.6%)	45.3 B\$ (27.8%)	Argo AI	자율주행
중국	599 (5.7%)	14,790 (23.2%)	394 (3.6%)	5 (1.1%)	12 (27.9%)	Indigo	농업재배
		24.7/건		1 (2.6%)	102.4 B\$ (63.0%)	Agriculture	농업재배
유럽	3,081 (29.5%)	8,845 (13.9%)	2,844 (25.9%)	120 (25.5%)	5 (영4, 프1) (11.6%)	Zoox	자율주행
		2.9/건		14 (36.8%)	8.5 B\$ (5.2%)	Automation Anywhere	RPA
						Toutiao (Bytedance)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SenseTime	안면인식
						Face++	안면인식
						Cloudwalk	안면인식
						Horizon Robotics	AI반도체
						BenevolentAI (영)	신약개발
						Babylon Health(영)	맞춤의료 서비스
						Graphcore(영)	AI반도체
						Darktrace(영)	사이버보안
						Meero(프)	사진플랫폼

※ 출처: 크런치베이스DB 자료(2019.9.24. 접속기준), CBinsight 유니콘자료 저자 재정리

2) 투자건수, 투자규모, 회수건수는 '10~'19.9까지의 누적 수치이며, 기업 수는 현재 영업기업 기준이다.
 3) 유니콘 기업(CB insight '19년 3월기준) 395개 중 43개가 AI 관련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11% 수준이다.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4 AI 주요 투자분야 변화와 유망분야

AI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분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0년부터 '19년 9월 기간 동안의 메가투자(mega-round)⁴⁾를 분석하였다. 메가투자는 '14년 이후 처음 나타나며, '19년 9월 현재까지 누적기준 108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⁵⁾. 주요시장 별로는 미국이 56건(123억\$), 중국이 38건(103억\$), 유럽이 8건(17억\$), 기타 지역(이스라엘, 싱가포르, 캐나다)이 6건(10억\$)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 시장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메가투자의 상위 10개 투자는 모두 '18년 이후 투자 건('18년 4개, '19년 6개)이었는데, 이는 투자 대형화가 큰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시기별 변화는 '17년 전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4 ~ '16년 기간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마케팅, 신약개발 등 빅 데이터분석, 온라인 서비스, 맞춤형의료와 바이오테크가 주요 투자처였다면, '17년 이후는 투자건수와 강도가 급격히 커지면서, 미국의 자율차 관련기업과 중국의 안면인식솔루션 기업을 중심으로, 로봇, 반도체, 바이오테크 분야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이후로는 캐나다, 유럽시장 등에서도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표 3 1억 달러 이상 메가투자 동향(2014~2019.9)

시기	투자규모 (백만\$)	전체	미국	중국	유럽/ 기타	주요 투자분야(상위3개 기업기준)
2014	428.6	4	3	0	1	1.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Domo, 미국) 2. 디지털 마케팅 (Sentient Tech, 미국) 3. 온라인 카풀 (BlaBlaCar, 프랑스)
2015	1,052.0	6	4	1	1	1. 신약개발 (Vertice Pharma, 미국) 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Domo, 미국) 3. 온라인 카풀 (BlaBlaCar, 프랑스)
2016	1,116.0	10	5	4	1	1. 맞춤형의료서비스 (iCarbonX, 중국) 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미국) 3. 바이오테크 (Zymergen, 미국)
2017	4,478.0	20	10	9	1	1. 자율주행 (Argo AI, 미국) 2. 안면인식 (MEGVII, 중국) 3. 안면인식 (SenseTime, 중국)
2018	8,664.3	37	16	18	3	1. 안면인식 (SenseTime, 중국, 1,3,4 위) 2. 휴머노이드 (UBTech Robotics, 중국) 5. 바이오테크 (Zymergen, 미국)
2019.9	9,423.3	31	18	6	7	1. 자율주행 (Argo AI, 미국) 2. 안면인식 (MEGVII, 중국) 3. AI 반도체 (Horizon Robotics, 중국)

※ 출처: 크런치베이스DB 자료(2019.9.24. 접속기준), 저자 재정리

- 4) 1억 달러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일컫는 벤처용어로, 단일 투자규모로는 매우 드문 투자였으나, VC 시장 성장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https://www.nytimes.com/2018/08/14/technology/venture-capital-mega-round.html>)
5) 이 기간 동안에 메가투자는 AI 분야 전체 투자 건수의 약 1%에 불과하나, 전체 투자금액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 메가투자 108건의 분석만으로도 투자분야 변화를 개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는 CBinsight가 발표한 AI 100(AI 100대 스타트업) 분석을 통해, 유망분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AI 100은 단순히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성과 성과, 투자금액 규모, 해당 산업의 시장전망, 미디어 노출(뉴스, 웹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한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즉, 앞 선 메가투자 동향이 회수시기가 가까운 후기단계 대형투자분야를 보여준다면, AI 100은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의 잠재적 성장이 높은 유망분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산업분야별로는 기업생산성 향상과 의사결정지원 관련한 B2B영역의 엔터프라이즈 기술 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전통적인 AI 투자분야인 헬스케어, 자동차, 반도체 분야 순이었다. 이외에도, 법무, 농업, 부동산, 미디어 등 새로운 분야도 부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업분야로는 기업 사이버보안, 의료 영상진단, 정부의 보안(안면인식), 자율주행의 사물인식,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의 전통적 분야 외에도, 가짜뉴스 탐색, 법무의 계약서 리뷰, 금융권의 감사, 정신건강, 무인상점 등 구체적인 응용분야가 포함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77개, 중국, 영국, 이스라엘 기업 각각 6개가 포함되었으며, 주요 투자자로는 실리콘밸리 VC가 상위 5개를 차지하여, 향후 AI 시장도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AI 유망 100대 기업의 세부 사업분야 및 기업 수

세부 사업분야	기업수	세부 사업분야	기업수	세부 사업분야	기업수
자동차	11	금융&보험	6	부동산	2
-자율주행	3	-사기방지	3	-3D모델링	1
-운전자안전	1	-백오피스 자동화	1	-자산관리	1
-지도맵핑	2	-감사(auditing)	1	정부	6
-사물인식	5	-행동분석	1	-재난관리	1
엔터프라이즈 기술	33	산업	6	-보안	5
-광고, 판매, 마케팅	5	-에너지 관리	1	헬스케어	14
-사이버보안	8	-IIOT	2	-의사결정지원	2
-데이터운용	8	-신물질 발견	2	-신약개발	3
-로봇프로세스자동화	2	-품질검사	1	-이미징&진단	6
-데이터 훈련	3	법무	4	-정신건강	1
-인공위성데이터분석	2	-증강 라이팅	1	-수술실	1
-강화학습플랫폼	1	-계약 리뷰	2	-원격모니터링	1
-소프트웨어 개발	2	-신원인증	1	반도체	7
-기타	2	미디어	3	-데이터 센터向	3
소매	5	-가짜뉴스 탐색	2	-엣지 디바이스向	4
-AI비서	1	-모션 픽션(제작)	1	통신	1
-예측분석	1	농업	2	-무선랜(WLAN)	1
-사기방지	2	-농업 바이오테크	1	합계	100
-무인상점	1	-농작물 모니터링	1		

<국가별 기업 수>

국가	기업 수
미국	77
중국	6
영국	6
이스라엘	6
기타	5

<주요VC와 투자건수>

VC명	투자 건수	소재지
GV(Google Ventures)	14	실리콘밸리
Intel capital	10	실리콘밸리
KPCB	9	실리콘밸리
Battery Ventures	7	실리콘밸리
New Enterprise Associates	7	실리콘밸리

* 출처: CBinsight AI100(2019), 저자 재정리

5 국내 AI 분야 VC투자 현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내 시장 분석에서는 투자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자료를, 기업 수와 사업내용은 국내 스타트업 정보플랫폼인 로켓펀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⁶⁾. 중소벤처기업부(2019)에 의하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34,249억 원으로, '17년 대비 43.9% 증가했다. AI 분야 벤처투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7년 대비 235% 증가한 1,369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의 상황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매우 열세임이 드러난다. 우선, 투자규모가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미국과 12.7배, 중국과는 8.3배 차이가 나지만, VC투자규모는 43.6배, 23.5배가 차이이며, AI 분야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무려 65.7배, 57.5배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질적 측면에서도 '19년 현재 기준으로 AI 분야 유니콘 기업이나 메가투자 유치기업, CBinsight의 AI 100 기업에 포함된 기업이 없다. 회수시장의 경우, IPO사례는 알려진 바 없으며, M&A의 경우 3건이 조사되었다.

로켓펀치 자료에 의하면, 국내 AI 스타트업은 230여개이다. 이들 기업을 누적투자금액기준으로 10위까지 나타내보면 <표 6>과 같다. 맞춤형교육, 의료영상진단, 기업용 플랫폼, 자연어처리 플랫폼, 개인화 추천 등이 주요 분야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투자가 엔젤 혹은 시리즈 A, B의 초기투자로 보이며, 누적투자금액 기준, 가장 많은 투자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맞춤형 교육플랫폼을 제공하는 리이드(Riuid)사로, 총 투자액은 344억 원(시리즈 C)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유치를 한 미국 Argo AI사의 누적투자금액이 36억 달러(약 4.3조 원)라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이 매우 초기단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 국내 AI 분야 VC투자 현황과 주요국과의 투자규모('18년 기준) 상대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가율
VC 전체 투자액	23,803억원	34,249억원	43.9%
AI 전체 투자액	408억 원 (39개)	1,369억 원 (66개)	235.5%
AI 비중	1.7%	4.0%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19.1.24. 보도자료)

구분	GDP	VC투자	AI VC투자
미국	12.7	43.6	65.7
중국	8.3	23.5	57.5
한국	1	1	1

* 출처: GDP(WorldBank), VC투자(pitchbook-미, chinadaily-중, 중소벤처부), AI VC투자(크런치베이스, 중소벤처부)

6) 앞선 분석에서 활용된 크런치베이스DB로 국내 시장을 조사할 경우, 본 분석에서 활용한 중소벤처기업부와 로켓펀치의 데이터 결과와 차이가 크다. 이는 self-reporting 방식으로 운영되는 크런치베이스가 의미권에서 보다 활성화되어, 국내기업 데이터가 충분히 입력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6 국내 AI 스타트업 누적투자금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기업 명	주요 분야	누적투자금액 (억원)	투자단계	투자 유치횟수	창업일
뤼이드	AI 튜터	344	Series C	10	2014-05-01
루닛	영상진단	206	series B	4	2013-08-27
JLK인스펙션	영상진단	180	비공개	2	2014-02-18
클라우드웍스	AI 데이터 플랫폼	143	series B	18	2017-04-25
로엔컴퍼니	법률상담 플랫폼	140	series B	9	2012-07-31
솔트룩스	자연어처리 플랫폼	107	비공개	3	2000-06-01
수아랩	비전기반 검사	101	series B	3	2013-03-29
AKA 인텔리전스	AI 엔진 및 로봇	108	비공개	3	2013-07-05
매스프레소	AI 교육 플랫폼	73	series B	6	2015-06-11
마인즈랩	AI 서비스 플랫폼	70	비공개	1	2014-01-03

※ 출처: 로켓펀치 DB 자료(2019.9.24. 접속기준), 저자 재정리

6 소결 및 제언

본고는 ‘10년-’19년 9월 현재까지 AI 분야 VC투자 시장의 동향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AI VC투자시장은 초기 시장을 넘어 성장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건수&규모, 창업과 회수(exit)의 주요활동량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한 후 성숙기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17년도 이후 중국과 미국 시장 중심으로 투자의 대형화와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다⁷⁾. 투자시장뿐만 아니라, 회수시장에서도 AI 스타트업의 M&A는 ’18년 119건으로 ’17년 7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투자분야 측면에서는 안면인식, 자율주행, RPA,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의 분야에서 기술 완성도가 높은 스타트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하며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기업생산성과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기술분야와 법무, 농업, 부동산, 미디어 등 신규분야에서 AI와 자동화기술을 적용한 구체적 응용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은 창업, 투자, 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전 세계 AI VC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투자 집중도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는 등 저력을 보여주며,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AI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AI분야 유니콘 기업 12개, AI 100에 6개 기업을 포함시키며 시장성뿐만 아니라, 기술

7) 분석기간 내 메가투자(1억 달러이상 투자) 108건의 투자는 전체 투자의 1%수준이지만 투자규모로는 41%를 차지했다. 또한 108개 투자의 대상인 75개 기업 중, 25개 기업이 2회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집중화가 확인되었다.

성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업들 가운데 자국펀드 뿐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horizon robotics, sensetime 등)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시장은 투자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이나, 투자건수, 기업수, 회수시장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으며, '18년 이후로는 메가투자의 흐름도 관찰되었다. 반면, 국내 AI VC투자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양적 규모나 경쟁력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열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AI 스타트업은 디지털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국가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정부 역시 지난 1월 5년 내 AI분야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⁸⁾. 그러나 AI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영역이 열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할까? 본고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 국내 스타트업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해외 시장에서 통용되는 혁신적 서비스모델도 국내에서는 규제저촉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사⁹⁾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며 18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AI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행 등 스타트업 규제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하고, 글로벌 기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 중국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전허용 원칙과 같은 유연한 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창업 이후 성장을 위한 안정된 지원이 부족하다. 한국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창업자(3만5187명) 중 93.4%는 투자자본 외에는 VC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VC의 역할은 투자 외에도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인력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창업 이후의 성장단계 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은 요원하다. 엑셀러레이터와 VC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AI 분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 되어야 한다.

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우수한 인재, 풍부한 자금, 활발한 네트워킹은 스타트업 입지의 3대 조건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보고서(2019)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하기 좋은 도시 Top25에 미국은 12개, 중국은 3개(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베이징은 실리콘밸리와 뉴욕 다음으로 기술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스타트업을 우리나라의 핵심경쟁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여 창업의 매력도를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관계부처 합동(2019),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9) 아산나눔재단(2019),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www.etri.re.kr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주요사업인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